

터닝메카드 윗돈 상술... 성탄절이 괴로운 부모들

〈로봇 변신 미니카 장난감〉

푼귀현상에 온라인·중고 사이트 두배 이상 거래

제조업체 “윗돈거래는 중간 유통상 대량구매 탓”

“터닝메카드 ... 진짜 징글징글하네요. 장난감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OOO(제조업체)에 이제 분노가 치미네요...” 최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이처럼 변신 로봇 완구 ‘터닝메카드’를 구하느라 지쳐 격양된 부모들의 게시글이 꼬리를 몰고 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터닝메카드를 기다리는 자녀를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뒤져야 할 뿐 아니라, ‘올해 겨자 딱기’ 식으로 두세 배에 이르는 윗돈까지 쥐여겨우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3만2000원 짜리 온라인서 7만~8만원에 거래=터닝메카드는 올해 2월 이후 지상파와 어린이 채널 등에서 방영되고 있는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로봇으로 변신하는 다양한 종류의 미니카들이 등장한다.

제조업체 손오공은 이 미니카(터닝메카드) 장난감을 독점 생산하는데, 애니메이션의 인기와 함께 터닝메카드 완구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특히 다른 변신 로봇 완구들과 달리 자석을 이용한 ‘팝업(뛰어남)’ 방식으로 순식간에 차가 로봇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이들 사이에서 더욱 인기가 있다.

문제는 이 장난감의 ‘푼귀 현상’이 너무 심해 대부분 윗돈을 주고서야 겨우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윗돈 거래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절정에 달했다.

터닝메카드 미니카 완구의 정상가격(대형 할인마트 판매가)은 1만6800원, 최근 크기를 키워 나온 새 ‘점보’ 시리즈의 경우 3만2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시장 마트에선 현재 거의 터닝메카드를 찾기 힘들다. 마트가 어렵게 물량을 확보해 한 사람에게 한 개씩 구매 수량까지 제한해 팔아도 몇 시간이면 동이 나기 때문이다. 결국 부모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뒤지기 시작하지만, 온라인에도 물량이 흔하지 않은데다 판매자를 찾았다고 해도

터없이 높은 가격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

◇손오공 “생산량 풀 가동=윗돈 거래는 개인사업자 탓”=해당 완구의 제조업체 ‘손오공’은 이런 푼귀현상과 윗돈 거래를 중간 유통상들과 개인사업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손오공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 마트의 요청(주문)을 받으면 수시로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이었지만, 지난 어린이날 이후로는 매주 정기적으로 마트에 공급하고 있다”며 “베트남과 중국 OEM(주문자상표 부착 생산) 공장으로부터 물건을 들어오는 횟수도 한 달 두 차례에서 주 2~3회로 늘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수요에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 생산과 공급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어린이날과 비교해 현재 터닝메카드 종류는 두 배 정도로 늘었는데, 제품 생산량은 네 배로 불었다”며 “새로 증설한 라인을 포함해 생산 시설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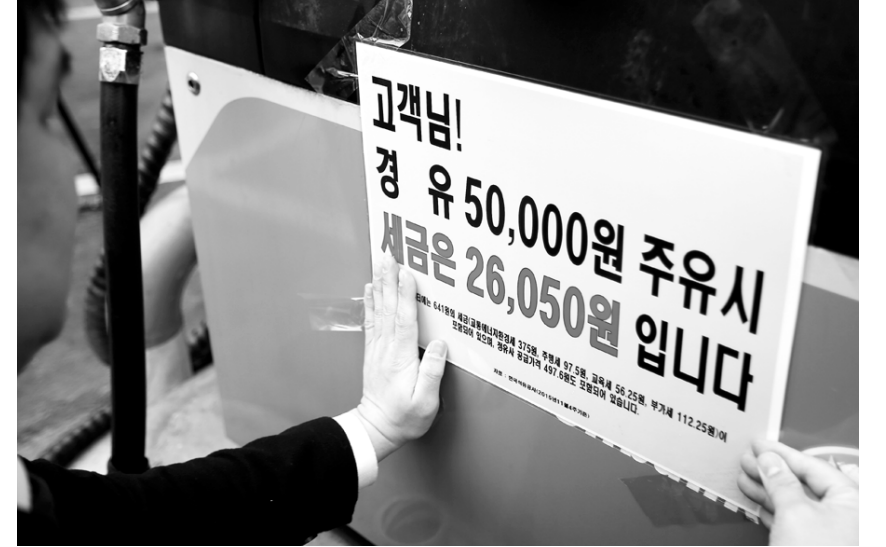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들이 제값을 주고 터닝메카드를 구경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제품 인기가 높아 지자 도매 총판으로부터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한 개인 사업자들이 온라인에서 윗돈을 받고 파는 것 같다”며 “고객들이 윗돈 거래로 피해를 보는데 대해 책임을 느끼고 계속 정가 구입이 가능한 마트 공급 물량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오공에 따르면 현재 생산량의 70%는 마트에, 30% 정도는 도매상으로 넘어간다. 이 도매상으로부터 물건을 확보한 개인들이 온라인 쇼핑몰, 중고 거래 카페 등에 정가보다 비싼 값에 물건을 내놓아 물의를 빚고 있다는 게 손오공 측의 해명이다.

아울러 손오공은 터닝메카드의 수요층이 일반 로봇 완구들보다 넓다는 점도 공급 부족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연합뉴스



터닝메카드 인기 지난 21일 서울의 한 대형 마트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완구인 ‘터닝메카드’ 코너를 쇼핑객이 살펴보고 있다. 터닝메카드의 특정 완구는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뒤져야 할 뿐 아니라 두세 배에 이르는 윗돈까지 쥐여겨우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한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대일주유소에서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가 ‘경유 50,000원 주유시 26,050원이 세금’ 홍보물을 주유기에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 3만5000원”

주유소협회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

한국주유소협회는 유류세 문제점을 바로 알리고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국 주유소는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5000원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주유소협회는 최근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계획을 발표하면서 매출액 10억원 이상 가맹점을 제외, 대부분의 주유소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같은 운동을 펼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유소협회는 “주유소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휘발유 가격의 60% 이상을 유류세가 차지하기 때문”이라며 “유류세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

하 혜택을 못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휘발유 1리터(ℓ) 판매시 부과되는 카드수수료가 20원 가량인데 이중 60%는 유류세에 대한 것이다. 정부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데 주유소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주유소협회는 “주유소당 연간 3천만 원 이상의 카드수수료를 징수 협력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그나마 주유소에 대한 연간 5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마저 제외시키려는 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 역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카카오톡 이모티콘 시장 더 커진다

‘충전소’ 오픈 구매 화폐 ‘초코’ 서비스

카카오는 이모티콘 시장을 확대하고 작가에게 더 많은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카카오톡 충전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 생기는 카카오톡 충전소는 이용자가 다양한 형태의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대가로 이모티콘을 구매할 수 있는 화폐인 ‘초코’를 지급받는 서비스다.

프로모션은 특정 업체나 브랜드의 플러스친구를 추가하거나 카카오톡스토리 채널 소식 받기,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실행, 동영상 시청, 카탈로그 구독 등이다.

이 서비스로 이용자는 좋아하는 이모티콘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고 작가는 더 많은 수익 창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 기업이나 브랜드는 이용자를 대상

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어 유용하다.

카카오는 이용자 재미와 만족을 극대화하고 이모티콘 작가에게 더 큰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받는 이벤트 집행 비용 대부분을 초코로 지급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카카오톡 충전소 내에 전용 이모티콘 스토어를 별도로 마련하고 신규 이모티콘을 받기에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자 모두 매일 1회씩 10~20 초코를 뽑을 수 있는 프로모션과 친구에게 ‘선물초코’를 보낸 이용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만700명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카카오톡 충전소는 최신 카카오톡 안드로이드 버전부터 우선 적용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휘발유보다 비싼 생수 원가 공개는 ‘물타기’

수입 생수 500ml 1000원 넘어

업체 “수원지따라 좌우” 되풀이

최근 국제유가가 급락한 가운데 세전 가격으로 휘발유 가격보다 비싼 생수가 소비자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는 세금이 붙기 전 ℓ(리터) 당 500원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를 500ml로 환산하면 250원 수준이다. 이는 국내 대형마트 판매 생수 가운데 가장 저렴한 제품이 500ml(미리리터)에 250원 정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생수 가격은 세전가격으로 휘발유보다 비싼 셈이다.

세금이 가산된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 리터당 1400원대 초반인데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수입 생수는 500ml당 1000

원이 훌쩍 넘는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수는 가격이 500ml당 250원에서 1000원 이상까지 천차만별이다. 대형마트 홈플러스에서 500ml 기준 PB 상품인 홈플러스맑은샘물은 250원으로 가장 싸다. 이외에 풀무원샘물(280원), 스파클(290원) 등도 200원대이다.

평화공원산림수, 삼다수, 백산수 등은 300원대였고 강원평창수, 휘오제주, 백두

산하늘샘 등은 400원대로 PB제품보다 가격대가 높게 형성된다. 수입 생수인 에비앙은 1300원에 판매된다. 생수는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가 5배 이상 된다.

이처럼 가격 차이가 크지만 생수 제조업체들은 원가 공개를 꺼린다.

다만, 수원지 등의 차이에 따라 가격이 좌우된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수원지가 백두산인 백산수를 제조하는 농심 관계자는 “생수는 원수의 품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원지가 중요하다”며 “수원지가 멀면 물류비용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 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펜션·문화복합시설 최적!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2-5번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1분거리
- ▶대지 2441평, 건물 882평, 임야6726평
- ▶과거, 펜션 박물관 식당 찻집 운영(구/송학랜드)
- ▶현재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2.1%, 월219만원)
- ▶1년후 약 18억 정도 재 대출 가능
- ▶법인체 인수시 이전비 1억 정도 절약
- ▶시세/감정가 30억 정도
- ▶매매 18억 8천만원(12/31일까지 완불 조건)

펜션, 리모델링 후(약 2억정도) 연 3억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 직매함 H.010-3605-5000

2016년도

부동산 투자!

(주)오천경매와 함께 시작 하십시오!

대표 : 최선규

H.010-3605-5000